# Essay 진달래가 가르쳐 준 것들

한 승 원〈소설가〉

나무줄기에 물이 오른다. 진달래가 꽃을 머금었다. 머지 않아 산골짜기는 여기저기에 불들을 환히 밝혀 놓을 것이다. 아니 산들이 모두 불타오를 것이다. 나는 진달래꽃이 피어날 무렵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산을 헤맨다. 내 속에도 그러한 꽃이 피어나고 있다.

흔히 진달래꽃을 연약한 꽃이라고들 말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애련미를 가진 여인으로 상징된다. 병들어 간들거리는 듯하고 창백한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꽃대도 연약하고 꽃받침 속에서 뻗어 나간 꽃통도 가늘고 길다랗다. 꽃잎사귀도 바람이 조금만 세차게 불면 찢어지고 처질 것 같다. 그것은 또 푸른 잎사귀도 대동하지를 않고 나왔다. 때도 이른 봄철이다. 쌀쌀한 겨울 같은 봄 속에 핀다. 다른 꽃들이 피지 않은 산간의 마른 나무나 풀들 사이에서 쓸쓸하게 피어난다.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관찰이다. 진달래는 결코 연약한 나무가 아니다. 생명력이 어느 나무 못지 않게 강하고 끈질기다. 자기를 향해 그렇듯 슬픈 정서를 노래하는 인간들에게 그 나무는 아마 화를 낼 것이다.

봄의 나무나 꽃들 가운데는 잎사귀들보다 꽃을 먼저 토해 내는 것들이

있다. 매화나무, 산수유나무, 목련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진달래나무, 벚나무, 개나리나무가 그것들이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말하여 지독스러운 나무들이다. 생명력이 굉장한 나무들이다. 겨울 한철 동안 그것들은 그렇게 꽃부터 토해 내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 꽃을 피워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나무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삼라만상은 그렇게 꽃피우고 열매 맺기 위하여 무수한 세월들을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려는 분투이다.

농사를 지어 보면 작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에 수분과 영양소를 가장 많이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락이나 갈대나 억새풀들은 이삭을 피워 내기 위하여 통통했던 몸체를 가늘고 홀쭉하게 만든다. 이삭을 위하여 몸 안의 모든 에네르기를 다 짜내는 것이다.

그런데 진달래의 경우는 겨울이 지나자마자 꽃부터 토해 내고 있는 것이다. 얼어붙은 땅 속에 뿌리를 묻은 채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고 죽은 듯 기다리면서 그 나무들은 혼신의 힘을 모아 꽃부터 토해 낸다. 글을 쓰는 나로서는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진달래가 꽃을 토해 내는 것을 보면 진저리가 쳐진다.

나는 글쓰는 일을 꽃피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 한 줄 한 줄에다 글쓰는 자기의 전인생을 투자하는 것이다. 글쓰는 일이 피를 짜내는 일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것이 어디 글쓰는 사람에 한한 일이랴.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의 불을 가지고 있다. 삼라만상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나는 진달래꽃이나 매화나 사과꽃이나 개나리꽃 들을 그 나무의 불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불의 생명력이다.

나는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작업을 하곤 한다. 이때 우리의 위나 창자에는 음식물들이 들어 있지 않다. 수분도 대부분 배설해 버리고 없다. 몸이 가장 가벼워진 상태일 터이다. 그때는 가장 맥이 없을 듯싶지만 사실은 가장 뜨거운 불꽃을 아기차게 피워 낼 수 있

는 때인 것이다. 밤새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몸 안의 영양소들은 힘으로 변해 있다. 심신이 가장 맑아져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이다. 이때가 사계절로 치면 겨울 다음의 이른 봄철이 아니겠는가. 진달래나 매화나 복숭아나 벚꽃이나 목련이 그렇듯 찬란하게 꽃을 토해 내는 까닭을 알 수 있을 듯 싶다. 이때 만일 일이 잘되면 반나절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한나절의 일을 거뜬하게 해 버릴 수도 있다. 이때가 일을 흥분하지 않고 가장 냉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저고리가 길면 바지가 짧다.」

나는 늦잠을 자느라고 아침 나절을 허비해 버린 아이들한테 이말을 해주곤 한다.

아침에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밥을 먹고 나면 10시 반이나 11시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일손을 막 잡으려고 하면 12시가 지나고 있다. 오전이 반쪽도 못 될 것이다. 아니, 오전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오전과 오후를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오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싸우면 어느쪽이 이기겠느냐?」

나는 늦잠을 자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부지런한 농사꾼은 새벽에 일어나 논밭을 둘러보고 가축들을 돌본다. 두엄을 마련한다. 부지런한 어부들은 새벽에 나가 밤잠 자고 난 밀물을 타고 오르는 고기를 잡는다. 부지런한 새들은 아침에 일어나 벌레를 사냥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잔다. 그는 인생을 절반밖에 살지를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달래한테서 배우라고 권한다. 진달래처럼 남들이 휴식을 할 때 꽃피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봄을 불태우는 것이다. 그것은 승화되는 일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 송이 꽃이 되는 일이고, 이 세상을 그 꽃으로 장식하는 일인 것이다.